

# 국무총리 모두말씀

- 이북5도청 방문, 8.7(월) -

- 김덕순 이북5도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북5도지사님들, 최종대 이북도민연합회장님, 도민회장님들 반가움. 진작부터 오고 싶었으나 차일피일 하다 꽤 늦어졌음. 여러분 보니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 섬.
-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지지 못하고, 남북관계가 딱딱 막혀서 아마 회장님들이나지사님들도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함.
-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란 것은 저희들 혼자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남북 양 당사자 차원을 벗어나 세계적인 문제가 돼 굉장히 문제가 복잡, 복합적으로 변질.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함.
-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이북5도도민들 사회가 형성이 돼 있고 그분들의 현안도 있을 것. 탈북자가 벌써 3만 명에 육박. 이북5도청의 업무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함.
- 여러 가지 어렵지만지사님들, 도민회장님들 애써주시고 정부하고도 더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함.
-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우선 좀 이북5도청이 하시는 일을 알고 싶었고지사님, 회장님들 말씀을 듣고자 온 것임.
- 오늘 시간이 길지 않겠으나 되도록 많은 말씀 들려주시고 현안이나 현장에 계시는 여러 지도자들께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과제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함.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함.

- 이산가족상봉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**탈북 동포들께서** 우리사회에서 억울한 일 겪지 않으시고 우리사회에 잘 **용해돼 국민의 한 사람**으로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, 그것이 **본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 기반의 조성에도**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짐.
-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사시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시거나 억울한 일을 겪으시면 북에 남아 계시는 가족들께도 그 소식이 알려질 것이고, 그렇게 되면 통일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안 될 것.
- 우리 사회가 탈북 동포들을 어떻게 대하고 모셔야 하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.
- 제가 전라남도 지사로 일할 적에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즉각 대처하기 위해 도청 안에 **인권센터**를 만들어 변호사 2명을 특별히 고용해 탈북동포, 조선족동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도에서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풀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우리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했음.
- 그런 방식은 하나의 힌트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동포들을 빨리 따뜻하게 품어 안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시며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차원에서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길임.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말씀 들려주시기 바람.